

# 광양시, 30억 들여 대형 조형물 설치 추진 '논란'

### 관문 경관 개선사업 기본계획 수립 위해 시민 대상 설문조사 시민단체 "애물단지 전락 우려...타당성·효과 철저 검토해야"

광양시가 관문의 경관개선을 하겠다며 수십억을 들여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조형물은 사후 관리에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며 30억원을 들여 조형물을 건립하는 관문 경관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형물의 위치와 기능, 형태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3월쯤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양-순천 경계 지점인 반송재와 광양 톨게이트, 동광양 톨게이트, 옥곡 톨게이트, 진월 톨게이트, 삼진강휴게소 진입부, 하동-광양 진입부, 남해-광양 진입부, 여수-광양 진입부 등 9곳 가운데 1곳을 선정해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형물은 공원 전망대나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게이트, 육교 등 3가지 형태로 제시했다.

시는 경관 조성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조형물 위치와 디자인을 선정해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광양시가 설문조사에 나서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애물단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 십억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하기에 앞서 타당성, 경제적 효과 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자체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며 추진한 공공 조형물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되거나 철거에 들어간 사례도 많다. 전북 무주군은 72억원을 들여 향로산 정상에 높이 33m짜리 '태권브이' 동상 건립을 세우려다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이 일자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북 포항시도 3억원을 들여 포항공항 입구 삼거리에 '은빛 풍어' 조형물을 세웠지만 10년 만에 철거됐다. 김진환 광양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설문조사에 앞서 시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다른 시군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양시는 경관 조성사업 자문위원회에 시행 업체와 예술계 인사를 확대 포함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조형물은 보는 시각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어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며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제성, 관리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올해 청년 일자리 3300개 창출한다

### 광양시, 3개 분야 57개 사업 계획 수립...기업 투자 유치 등 총력

광양시는 청년의 일자리 지원이 지역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2020년 청년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를 목표로 ▲기업투자유치, 지역산업육성 및 다각화를 통한 '신규일자리' 500여개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빈 일자리 채우기' 2000여개 ▲정년역량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창업·창업,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등 '틈새 일자리' 800여개 등 총 3300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다. 주요 시책은 3개 분야 57개 사업으로 먼저, '신규일자리 분야'에서 전기 자동차 및 부품공장 투자유치, 차세대 신소재산업 연단단지 구축, 주력산업 제조혁신 및 특화산업 육성을 통해 25개 기업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빈 일자리 채우기' 시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포스코 그룹 취업지원을 위한 포스코 그룹 취업 아카데미 운영, 전남형 블루인턴 지원사업 30명 지원, 기초산업분야 고숙련 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틈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창업 지원, 문화 예술분야 일자리, 미래 유망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정착형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장형근 광양시 투자자리담담장은 "광양시는 전남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많고 평균연령도 전남에서 가장 젊고 활력있는 도시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 계획이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 활성화에서 지역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지난 15일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신규 임용후보자 임용장 수여식에서 후보자들이 정현복 광양시장 앞에서 공식자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 광양시 신규직원 가족 초청 임용장 수여식 '눈길'

광양시가 신규 직원들의 가족·친지를 초청해 임용후보자의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식사회에 첫발을 딛는 신규 직원 48명과 가족·친지들을 임용장 수여식에 초청해 임용후보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근무의욕을 높이고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기존 임용장 수여식의 틀에서 벗어나 자녀가 감사편지를 낭독하고 부모의 격려말씀, 광양시 배지 전달 등 가족과 신규 직원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가족은 격려말씀을 통해 "오늘 임용된 신규 직원들이 임용장을 받는 오늘이 첫 마음가짐을 늘 기억해 청렴하고 공명정대하며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공직자가 되어주

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신규 임용후보자들의 자긍심 고취에 초점을 맞춰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한 가족분들을 초청해 이와 같은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시장을 포함한 모든 선배 공직자들이 신규 직원들의 멘토가 되어 광양시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추고,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선배공무원과 6개월 간 함께 활동하는 멘토링 제도, 신규 직원 소양교육 및 지역 내 현장시찰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광양시,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10만원 상당 광양사랑상품권 지급  
광양시가 지역 내 고령운전자에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고령운전자 중 경찰서 민원실과 광양운전면허 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 취소 처리된 어르신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을 1회에 한해 지

원한다. 접수는 광양시 교통과,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매 분기별로 신청자 중 고령자를 우선으로 200명을 선정해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지역 내 운전면허 소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OK생활민원기동대' 시민 불편 신속 해결

### 광양시 취약계층 지원 호응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광양시는 2014년 6월부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자체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인력 2명으로 OK생활민원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OK생활민원기동대는 2018년에 전년 대비 사업비를 2배 증액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2019년 저소득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16%증가된 1435건을 처리해 호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처리 유형별로는 ▲전기 860건 ▲수도 107건 ▲난방 22건 ▲소규모 집수리(도배, 장판 포함) 307건 ▲공공복지시설물 139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운 가정에 꼭 필요한 생활민원 기동대로 정착하고 있다. 2019년 11월 불편사항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기구 중 92%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더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OK생활민원기동대는 불편사항 접수민원을 3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일상생활에 사소한 불편사항 발생 시 해당 읍면동이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불편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홍보 부족으로 이용을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순회 방문해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생활 불편사항 해소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